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리

무르익는 봄빛에 몸도 마음도 한껏 부풀어 오르는 계절이다. 이 세상 온갖 잡것들을 쓸어버리고 승리의 봄을 불러오는 백두의 칼바람을 폭풍처럼 구름 10월의 대추전망대로 천군만마의 기상으로 달리는 백두산대국의 앞날을 축복하는가 저 하늘의 태양이 억만 해살로 쏟아져내리는 4월, 유치원마당이 좁다 하게 뛰노는 귀영동아들이 바라보던 그속에 꼬마들을 무릎에 앉힌 어머니수령님께서 행복을 거머쥘 것이란 것만 같고 아이랑이 아아아아아는 농장조각을 바라보며 허리에 손을 얹고선 어머니수령님께서 그 인상적인 호방한 걸음새로 금시라도 이랑을 타고 오실것만 같아 친민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격랑치는 4월, 날로 밝아지는 위대한 태양의 빛바람이 나날이 더 화창하고 약동하는 내 조국의 4월이 아니던가.

조국과 혁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한평생 심정을 불태우시며 동서대륙을 누비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방방곡곡에 창조와 건설의 기록한 자욱을 정입업이 찍어오셨으며 한없이 파사로운 정과 열로 만민을 사랑하고 극진히 보살펴주신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공장에서, 농민은 지주없는 땅에서, 녀성들은 남나차별없는 세상에서 활개치며 살아보았으면 하던 인민의 녀름을 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이다. 인민대중은 나의 스승, 나는 인민의 충직한 아들! 고생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은 인민에게!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한생을 관통한 인생관이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으며 위대한 한평생 인민이라는 대지위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며 다함없는 정과 열을 다하여 가꾸어 오신 우리 수령님. 우리 당과 혁명이 걸여온 전력사적로정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인생관이 미증유의 현실을 펼친 불멸의 로정이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은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역사에 류례없는 가장 훌륭하고 방대한 사업, 가장 위대한 업적을 혁명사에 찬연히 기록한 전체의 애국자의 영웅사시적인 행로이다. 인민을 한몸에 안으시고, 인민의 녀름을 가슴깊이 새기시고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류례없는 사랑의 력사이다.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인민성은 천품이었고 생명이었으며 핵이었다. 인민성을 떠나서 우리 식의 사회주의라는 훌륭한 집을 상상할수 없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할수 없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수령님의 품에서 행복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이란 무엇인지 비로소 알고 수령님의 손길따라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 하늘같은 은근 어이 잊을수 있랴.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는 오직 인민밖에 없었다. 기뻐하시고 마음쓰라려하신것도 오직 인민을 위해서이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료해하시다가 가마안에 넣어둔 쌀과 국그릇을 보시고 한손에 솟두평을 드신채 흰쌀밥에 생선국이구만라고 하시며 인민들의 살림이 편이여가는것이 너무 기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신 우리 수령님. 현지지도의 어느 무더운 날 혁명의 불씨를 지도하시면서 내 나이 50이 되도록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였으니 한스죄라고 못내 가슴아픈 어조로 뇌이시여 장대를 울리신 우리 수령님, 어느 날 로동자들의 살림집구획의 남새문제가 걱정되시여 저들 당부하시고 심을 자라도 잡아주시고 가꾸는 법도 가르쳐주시였으며 그해 겨울 어느 추운 날에는 부부와 싸우, 오이와 콩고추를 채어 싣고 다시 오시여 이제 로동자들에게 겨울납세를 먹이차고 드집게 이르신 우리 수령님...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정원엔 감을 심으시고 그 생물학적특성을 20년이상이나 연구하신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포연에 그슬린 불모의 언덕에서 오늘의 과일나무들은 그르보시며 전선길에 차를 멈추시였으며 산비탈의 몇그루의 사과나무를 통하여 온 나라 과일동산을 내다보시고 가랑비에 옷차락을 적시며 복청의 산밭을 타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쓸모없던 땅포를 보시고도 인민들의 푸짐한 밥상을 그르보신 우리 수령님. 하늘땅도 인민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는 우리 수령님의 그 위대한 인민관에 의하여 버림받던 북방의 대지가 가슴을 헤쳐 풍요한 수확을 주는 기쁨진 대지로 전변될수 있었고 양상하던 석회석산이 비나론을 주는 보배산으로 될수 있었으며 비바람에 설레이던 갈밭도 비단실이 되는 천지개벽의 력사가 이 땅에 생겨나지 않았던가. 좁해서는 볼수도 없고 알수도 없는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 인민들의 속마음까지도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다 살피시고 헤아려주시였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금방이든 손을 내밀 때 뛰어들었다 있었으면 하는 부모들의 심정도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알아주시였고 오랫동안 팔자식의 집을 찾아가며 열차에서 외손자에게 줄 간식을 찾듯 할머니의 심정도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다 알아주시였다. 벌목공을 만나시던 신발공작부러 하시었고 제사공을 만나시던 손부러 만져보신 우리 수령님. 소여물병새가 짝 들어찬 방안에 수령님들이는 송구하여 물물따를 몰라하는 일군들에게 소여물병새? 그게 얼마나 구수한 거요, 소여물병새가 풍기는 이런 온몸에 앉아야 모임을 가져야 농민들이 마음이 편해서 흥분을 다 털어놓소, 어서 들어가요라고 하시면서 성품 방안에 들어서신 우리 수령님! 그 소여물병새가 들어찬 방안, 농장원들이 짝 들어찬 좁은 방 안에서 밤 12시가 다될무렵까지 농장일을 의논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정치철학, 정치리념으로 내세우시고 그 성스러운 력사적업의 길에서 자신을 초월처럼 불태우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 인민과 더불어 어떻게 영생하는가 하는 진리로 세계를 진감시키신 우리 장관님! 어머니수령님의 유혼을 당의 강령으로 틀어쥐시고 그 관철로 전당, 전군, 전민을 신약같이 불러일으킨 우리 장관님!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혼관철의 길에 바치신 우리 장관님의 전민불발의 강령군기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 우리 조국의 최후한 소망이다.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헌신하신 수령님의 모습을 지나가나 그리시며 수령님께서 결으신 인민사랑의 길에 자신의 발자욱도 합치시여 인민의 행복과 존엄을 위해 헌신히 선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관님께서 계시어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마음과 더 가까와지시였고 인민의 마음속을 더 위대하게, 더 친근히 자리잡게 되시였다. 우리 인민의 보다 큰 행복도, 후손만대의 번영도 오직 우리 수령님들의 추복속에 이룩될수 있다는것, 수령님들의 품속에 영원히 실려있는것, 바로 이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강령이다. 세상에 오직 우리 인민만이 간직할 이 열화같은 숙원을 이룩해주시는분은 최고생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하늘이든 끝없는 애국자, 불세출의 명장, 만민의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다.

그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 수령님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창조와 번영의 력사를 장엄히 펼치고 사회주의강대국에서 살려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념단심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 * *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노래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친 위대한 애국자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노래, 영원한 충성의 노래이다. 지나온 력사에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세계정지사에 흔적을 남긴 이름있는 정계와 위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어르신 나이로부터 80여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탁월한 사상과 영도,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서 20세기를 반세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걸출한 수령, 전체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로 영생하시는 위인, 인민을 위대한 존재로 존대하고 높이 내세우신 인민의 수령, 그 인민을 위하여 력사의 만고풍상을 다 겪으시여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시는 애국자는 열찌 없었다.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당신의 어머니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웠던 애국적 구취처럼 하는 이런 감동같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랴. 우리 수령님은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자라나나 걱정일 많으신 나라의 호주이시였다. 땅이 절편 걸어서라도 오고자고 하시며 험한 갈림길에 앞장서 헤치신 비단실 같았던 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지만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력



구호현을 통하여 항일혁명선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르배우고있다. -만경대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수령영생의 대화원이 전하는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장공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 정열과 숭고한 애국의리심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화원이며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에 펼쳐진 인민의 공원입니다.》** 두해전 어느 날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리는 승용차안에는 한 외국인이 타고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 정원들을 많이 설계하여 무시할수 없는 존재로 명성이 높은 원에설계된 문가였다. 만민의 태양이신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관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궁전으로 꾸민다는 소식은 일찍부터 조선의 영명하신 령도자들에 대한 존경은 흠모의 정을 안고있는 그에게 역제할수 없는 흥분을 가져다주었다. 더구나 궁전광장을 공원화하였다는 소식은 한생을 원에설계가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평양에 온 그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게 되었다. 금빛찬란한 대원수벌이 새겨진 불대문을 지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서자 그는 우뚝 서버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밝고 환한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는 궁전의 웅장장중한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안에 펼쳐진 공원의 자태가 눈부시게 인자하였던 것이다. 《저 나무들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이것은 인공잔디가 아닙니까?》 동행한 일군이 대답할 사이도 없이 연방 질문을 틀어대던 그는 주석단에 올라가 공원정원을 보게 해달라고 하였다. 주석단에 오른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아예 멍을 잃었다. 《이 광장가운데 특조조성은 누가 발기하였습니까?》 《예 그러십니까?》 《이 중심부지부분을 형성하지 않았던 공원이니 가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중심이 있었기때문에 땅속 대를 이루고 이곳을 훌륭한 공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참으

로 위대한 발기입니다.》 씩 웃음을 해가며 설명하는 그의 말은 커다란 흥분을 띠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공원을 설계한 설계가 당장 꼭 만나야겠다고 일군에게 말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자부심에 넘쳐있던 동행한 일군은 다음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이 중심부지조성발기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시였습니다.》 《뭘까요?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이 공원의 모든 설계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거나 보아주시고 친히 수정까지 해주시면서 오늘과 같이 완성시켜주신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세부에 일류기술계가를 통가하는 예술적인 면서 내용적인 깊이를 보장하고있는 공원은 보통설계가의 솜씨가 아니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처럼 뛰어난 일떠와야 하였고 그럴만이요. 그는 저도모르게 그는 파시 위인이시구나라고 감탄하였다. 허나 그는 알수 없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익히고 쌓아온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한다고 해도 도달할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고도 심원한 창조적 사색과 리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지. 일군들의 눈앞에는 주제 101 (2012)년 12월의 일수를 생각해 그날이 어찌된듯 되게 되었다. 흰눈덮인 겨울이지만 머지않아 아름다운 모습을 한껏 펼쳐보일 공원의 광경을 그려보며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심으로 가슴앓이하고 있었다.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원을 또 한번 새롭게 변모시킬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고 계시였다. 그이께서는 광장바다도 설치 할것에 보나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하시며 그곳은 공간을 그대로 놔두니 공원화한것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광장바다중심공간이 공원화에 어울리지 않으니 당장 그만. 그는 저도모르게 그는 파시 위인이시구나라고 감탄하였다. 허나 그는 알수 없었다. 오랜

사랑의 참빛과 열매빛

사람들의 머리를 단장하는데 쓰이는 머리를 구해오는것이 불과 어머니가 오가는 리철한 낙전밭에서의 전투임무로 낙지다면 누구나 놀라와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의 열정을 이어나갈 후대들을 기우는데 바치신 수령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제 22(1933)년 봄이 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 임무를 받은 한 부대는 출발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향수천에서 동지를 통과하는 적들을 소탕할때 대한 임무였다. 그런데 이때 몇몇 대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급히 사령부 로 부르신다는 연락을 받자 뒤로

그들의 말씀에 긴장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렇게 너무 긴장할것까지는 없다고 하시면서 수행할 특별임무는 이번 전투에서 참빛과 열매빛을 구해오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지랄한 격전장에서 참빛과 열매빛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자신께서 얼마전에 소복구아동단학교 칩실에 가보니 처녀들이 빛이 없어 머리를 빗지 못하고있었다고 이야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원들에게 생각해보시오, 적들에게 부모뫼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친부모가 되어 돌봐주어야지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전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 열매빛과 참빛을 구해야 하겠다. 그들 당부하시는데였다. 그들의 가르침을 새겨안은 대원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뜨거웠던 열매빛이... (유적자의 아이들을 위해 아동단학교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그토록 깊은 관심을 들리

시는 김일성장군님!)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할 유력대원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어려운 전투장에서 참빛과 열매빛을 구했다. 대원들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며칠후였다. 소복구아동단학교를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동단원들의 칩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생활에 미흡한 점이라도 있을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러시며 김일성동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이시였으며 그 누구와도 비길수 없는 숭고한 인격으로 만사람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하늘과 같은 분이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레닌도 없는 황가 물이 계속되면 주제 54(1965)년 7월 어느날에 있는이다. 각지 기상관측소에서 온 기상 통보자료를 종합하던 기상수문

걱정을 풀어드리지 못한 기상통보

국의 한 일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여러달째 지속되던 고기압이 밀려나고 마침내 저기압이 형성되었었다. 가을에 의한 농사피해때문에 걱정이 되서 수시로 전화를 걸어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음을 농성하게 되었다. 생각으로 일군은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촌도 전화를 걸어오실것만 같아 일군은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매마침 전화소리가 울렸다. 송수랑을 걸고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오는 데 이르러는 날씨가 흐렸는데 어머시요. 날씨가 흐렸다고 물으시는 그의 우렁우렁한 웃음이 들려왔다. 일군은 내용물쪽에서 오는

미칠것 같다는 일군의 이야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부까지 만 미친단 말이오라고 하시며 또 다시 이야기를 끊으시였다. 비가 온다는데 어찌서 실망해하시는지 일군은 도무지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그러는 일군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기압이 중부조선까지만 밀려나지 않아요. ...날씨가 흐렸는데 비가 온다는데 대하여 알려드려요.》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고 강수량을 알아보시고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번 저기압이 우리 나라 전지역에 다 미칠것 같은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저기압이 약해서 중부조선까지나

많은단 우리 수령님께서도 전하를 그려안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제때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한생을 강타리 바치오신 그런 인민의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는 없을것이다. 잠시후 일군은 이제 보름만 있으면 남쪽에서 저기압이 밀려오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루가 서로내 아직도 보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군심을 놓지 못하시였다. 전하는 끊어졌다. 다음날 그토록 애래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 온 나라가 기뻐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걱정속에 담뭍하늘을 바라보고 계시였다. 본사기자 백영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3분께 즈음하여

근로단체들에서 경축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3분께 즈음한 경축모임이 10일 근로단체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와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서, 근로단체 일꾼들, 동맹원들, 근로자들이 경축모임에 참가하였다. 청년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기판재기판사 김성철, 락방구역 류소남새전문화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성영, 대동강구역청년동맹위원장 조충일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것을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사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썩어지지 않고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참창합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서 시시어 비범한 사상리론적역시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동맹을 선군혁명위업 수행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익추새대로 값높이 내세우시며 당의 정치적후비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 가도록 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오늘도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승리의 불꽃을 높이 올리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모든 청년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튼튼히 다지며 인민군대를 천철육의 정으로 적극 원호함으로써 군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조직들은 청년학생에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10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청년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백두의 행군길을 뜻이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운명이고 미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힘찬 투쟁을 벌려 조국에 드리는 청춘들의 자랑스러운 령도적전열을 안고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뛰어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앙로동자위원회에서 진행된 로동자들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수동의 보고에 이어 철도성직맹위원장 리승권, 김정정형제사무원장 최광진, 김정정형제사무원장 김윤성, 류경건설관리국 로동자 장철훈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직맹일꾼들과 로동자들과 농공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명철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황해남도농공맹위원장 부위원장 주덕철, 삼지강현 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혜숙, 사리시시 미곡협동농장 농장원 김옥성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애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체 농공맹원들과 농공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총동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천적단결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을 대를 이어 역세게 걸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알곡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농산과 축산, 파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태체계를 확립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역사를 대대손손 빛내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농공맹조직들과 일꾼들이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사회주의건설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 협동벌이 당의 농업정책판관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공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명철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황해남도농공맹위원장 부위원장 주덕철, 삼지강현 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혜숙, 사리시시 미곡협동농장 농장원 김옥성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애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체 농공맹원들과 농공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총동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천적단결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을 대를 이어 역세게 걸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알곡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농산과 축산, 파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태체계를 확립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역사를 대대손손 빛내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농공맹조직들과 일꾼들이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사회주의건설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 협동벌이 당의 농업정책판관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공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것을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사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썩어지지 않고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참창합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서 시시어 비범한 사상리론적역시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동맹을 선군혁명위업 수행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익추새대로 값높이 내세우시며 당의 정치적후비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 가도록 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오늘도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승리의 불꽃을 높이 올리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모든 청년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튼튼히 다지며 인민군대를 천철육의 정으로 적극 원호함으로써 군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조직들은 청년학생에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10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청년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백두의 행군길을 뜻이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운명이고 미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힘찬 투쟁을 벌려 조국에 드리는 청춘들의 자랑스러운 령도적전열을 안고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뛰어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앙로동자위원회에서 진행된 로동자들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수동의 보고에 이어 철도성직맹위원장 리승권, 김정정형제사무원장 최광진, 김정정형제사무원장 김윤성, 류경건설관리국 로동자 장철훈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직맹일꾼들과 로동자들과 농공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명철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황해남도농공맹위원장 부위원장 주덕철, 삼지강현 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혜숙, 사리시시 미곡협동농장 농장원 김옥성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애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체 농공맹원들과 농공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총동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천적단결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을 대를 이어 역세게 걸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알곡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농산과 축산, 파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태체계를 확립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역사를 대대손손 빛내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농공맹조직들과 일꾼들이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사회주의건설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 협동벌이 당의 농업정책판관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공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것을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사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썩어지지 않고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참창합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서 시시어 비범한 사상리론적역시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동맹을 선군혁명위업 수행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 학생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10일 주조 유엔성원 및 농업기구, 유엔이동기금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뎡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 있었다.

이 없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동행 이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인민극장에서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를 관람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우리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더해준 호르는 세월도 지울수 없는 추억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의 호소마라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에서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평양시비석공장에 참관하였다. 대의원들은 생산방법이 공업적이고 집약화수준이 높을뿐 아니라 비석기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공장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참관

정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과 세심한 보살핌속에 중앙양묘장이 현대적인 나무

모생장기지로 꾸며져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대의원들은 목욕은실,

그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의 호소마라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에서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참관과 관람을 통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어나는 강성번영의 시대로 빛내여 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몫 다 바칠 결의를 굳게 가다들었다.

이 없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동행 이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인민극장에서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를 관람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우리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더해준 호르는 세월도 지울수 없는 추억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의 호소마라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에서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참관과 관람을 통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어나는 강성번영의 시대로 빛내여 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몫 다 바칠 결의를 굳게 가다들었다.

이 없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동행 이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인민극장에서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를 관람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우리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더해준 호르는 세월도 지울수 없는 추억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의 호소마라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에서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산림복구전투성과는 총동원, 총집중에 달려있다

3월 중 나무심기에서의 성과와 교훈을 놓고

로 천수백정보의 면적에 수백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을수 있었다. 지난해에 도적인 나무심기계획을 100% 수행한 평안남도의 시, 군, 읍에서도 총동원의 불결이 새겨져 타올랐다. 선전운동도 타올라 올해에 군 2,000정보의 면적에 610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중동원사업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불결나무심기전투 첫날부터 9정보의 면적에 3만여그루를 심고 5정보의 면적에서 2만여개의 구멍이파기를 진행하였다. 황해남도에서도 산림복구전투에 도안의 령향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선차적으로 틀어쥐고 내밀었다. 도당위원 일꾼들이 지역과 단위를 맡고 내려가 선전선동사업을 화신식으로 벌려 총동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해주시, 은천군을 비롯 한 도안의 모든 지역들이 산림복구전투를 경쟁적으로 벌려냈다. 황해북도의 시, 군들도 나무심기에서 실적을 올렸다. 름산군에서는 은 군이 펼쳐나 많은 나무모와 함께 분진기, 물막기 등 나무심기준비를 힘있게 갖추고 산림복구전투에 진입하였다. 일꾼들이 앞장에서 산란에 올라 나무를 정성껏 심으면서 군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수유나무, 창성이깔나무, 세일소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매일 40만~50만그루씩 심어 계획보다 수십만그루나 더 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다른 군에서도 불결나무심기전투에 모든 노력을 총집중하여 방대한 면적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평안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다른 도에서도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한 마음한뜻으로 펼쳐나 나무심기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지금의 기세로 나가면 이번 불결나무심기전투기간에 전국적으로 수억그루의 나무를 심을수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산림복구전투에 모든 령향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조직적사업을 벌렸음이 바로 대중의 힘을 총발동한 시, 군, 구역들이 서는 메이였기 성과가 있다는것이다. 현실은 산림복구전투에 모든 령향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에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대해주고있다.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다시 추서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할수 있는 나라의 산림을 복구하자면 나무심기에 모든 령향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서흥군에서는 당의 호소마라 전국각지에서 조국의 수명을 푸르게 하기 위한 불결나무심기전투에 진입한 지난 3월 초 군산림경영소의 일부 로력을 나무심기

와는 인연이 없는 사업에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어느 단위의 로력도 아니고 산림복구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군산림경영소의 일부 로력을 군간의 한 대산건설에 동원시킨것은 서흥군일꾼들이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고있는 산림복구전투를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군안의 벌거숭이산들을 놓고 누구보다 귀찮음을 깊이 느끼고있는 군산림경영소 종업원들이 그 어느때보다 자기들의 손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나무모들과 벌거숭이산들을 뒤에도 건실정도로 향할 때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것은 서흥군일꾼들이 나무심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로만 외우면서 산림복구전투에 모든 령향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에 대한 당정책을 결사대하였기때문이다. 당정책의 운명은 다름이 아닌 일꾼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 일꾼들이 당의 결정지를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관행에 결사분투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로력이 아무리 높아도 당정책을 제대로 정확히 관철할수 없다. 지난 시기 일부 도, 시, 군에서도 나무심기계획을 미달한 기본원일의 하나가 바로 양보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건설장소가거나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어야 할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땀은 등 로력이 집중되지 못했었다. 특히 일부 군들의 경우 불결나무심기기간에 여러 기관, 기업소 로력뿐 아니라 군산림경영소의 적지 않은 로력까지 나무심기와 관련이 없는 이러저러한 일에 돌린 결과 나무심기에서 뒤떨어지게 되었다. 강원도에서는 불결이 10여개 시, 군산림경영소의 많은 로력을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생략하고 추진하면서 나무심기전투에서 성과 거두고있는것은 로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를 놓치며 심은 나무들의 수를 얼마나 현상까지 나타냈다. 일꾼들이 산림복구에 로력을 집중하기만 했어도 애써 키워 심은 아까운 나무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단순히 로력관리에서 나타난 실무적인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많은 군들에서 인민들에게 명명한 생활을 일관해주시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생략하고 추진하면서 나무심기전투에서 성과 거두고있는것은 로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를 놓치며 심은 나무들의 수를 얼마나 현상까지 나타냈다. 일꾼들이 산림복구에 로력을 집중하기만 했어도 애써 키워 심은 아까운 나무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단순히 로력관리에서 나타난 실무적인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많은 군들에서 인민들에게 명명한 생활을 일관해주시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생략하고 추진하면서 나무심기전투에서 성과 거두고있는것은 로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를 놓치며 심은 나무들의 수를 얼마나 현상까지 나타냈다. 일꾼들이 산림복구에 로력을 집중하기만 했어도 애써 키워 심은 아까운 나무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단순히 로력관리에서 나타난 실무적인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많은 군들에서 인민들에게 명명한 생활을 일관해주시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생략하고 추진하면서 나무심기전투에서 성과 거두고있는것은 로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를 놓치며 심은 나무들의 수를 얼마나 현상까지 나타냈다. 일꾼들이 산림복구에 로력을 집중하기만 했어도 애써 키워 심은 아까운 나무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의 한을 하면서 보신주의올라리를 치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당정책이 제대로 관철될수 없다. 일꾼들은 당의 의도를 누구보다 앞장에서 받아들여 한다. 당에서 나무심기에 령향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로력관리사업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당의 의도를 충실히 이행할수 없다. 모든 일꾼들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벌거숭이산들을 언제라도 수리화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전쟁시기에 인원과 화력을 집중하여 고지점령전투를 벌렸듯처럼 산림복구에 령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벌거숭이산들을 하루빨리 수리화하여야 한다. 특히 산림복구전투를 여러가지 명목으로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거나 로력관리사업을 엄격히 하지 않아 나무심기에 필요한 령향이 분산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산림복구에서 오분열되는 절대금지이다. 쟁쟁비뿔듯 헤쳐는 나무수종을 뿌리고 엄혹한 기후조건에서 모를 재배하며 해를 이어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하는 장기적인 산림복구사업에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팔장을 볼 때까지 꾸준히 로력과 수단을 집중하면서 나무모생산과 나무심기전투를 줄기차게 벌리고 심은 나무들의 생리를 일관해주시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생략하고 추진하면서 나무심기전투에서 성과 거두고있는것은 로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를 놓치며 심은 나무들의 수를 얼마나 현상까지 나타냈다. 일꾼들이 산림복구에 로력을 집중하기만 했어도 애써 키워 심은 아까운 나무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단순히 로력관리에서 나타난 실무적인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많은 군들에서 인민들에게 명명한 생활을 일관해주시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생략하고 추진하면서 나무심기전투에서 성과 거두고있는것은 로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를 놓치며 심은 나무들의 수를 얼마나 현상까지 나타냈다. 일꾼들이 산림복구에 로력을 집중하기만 했어도 애써 키워 심은 아까운 나무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의 한을 하면서 보신주의올라리를 치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당정책이 제대로 관철될수 없다. 일꾼들은 당의 의도를 누구보다 앞장에서 받아들여 한다. 당에서 나무심기에 령향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로력관리사업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당의 의도를 충실히 이행할수 없다. 모든 일꾼들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벌거숭이산들을 언제라도 수리화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전쟁시기에 인원과 화력을 집중하여 고지점령전투를 벌렸듯처럼 산림복구에 령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벌거숭이산들을 하루빨리 수리화하여야 한다. 특히 산림복구전투를 여러가지 명목으로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거나 로력관리사업을 엄격히 하지 않아 나무심기에 필요한 령향이 분산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산림복구에서 오분열되는 절대금지이다. 쟁쟁비뿔듯 헤쳐는 나무수종을 뿌리고 엄혹한 기후조건에서 모를 재배하며 해를 이어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하는 장기적인 산림복구사업에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팔장을 볼 때까지 꾸준히 로력과 수단을 집중하면서 나무모생산과 나무심기전투를 줄기차게 벌리고 심은 나무들의 생리를 일관해주시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생략하고 추진하면서 나무심기전투에서 성과 거두고있는것은 로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를 놓치며 심은 나무들의 수를 얼마나 현상까지 나타냈다. 일꾼들이 산림복구에 로력을 집중하기만 했어도 애써 키워 심은 아까운 나무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의 한을 하면서 보신주의올라리를 치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당정책이 제대로 관철될수 없다. 일꾼들은 당의 의도를 누구보다 앞장에서 받아들여 한다. 당에서 나무심기에 령향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로력관리사업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당의 의도를 충실히 이행할수 없다. 모든 일꾼들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벌거숭이산들을 언제라도 수리화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전쟁시기에 인원과 화력을 집중하여 고지점령전투를 벌렸듯처럼 산림복구에 령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벌거숭이산들을 하루빨리 수리화하여야 한다. 특히 산림복구전투를 여러가지 명목으로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거나 로력관리사업을 엄격히 하지 않아 나무심기에 필요한 령향이 분산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산림복구에서 오분열되는 절대금지이다. 쟁쟁비뿔듯 헤쳐는 나무수종을 뿌리고 엄혹한 기후조건에서 모를 재배하며 해를 이어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하는 장기적인 산림복구사업에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팔장을 볼 때까지 꾸준히 로력과 수단을 집중하면서 나무모생산과 나무심기전투를 줄기차게 벌리고 심은 나무들의 생리를 일관해주시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생략하고 추진하면서 나무심기전투에서 성과 거두고있는것은 로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를 놓치며 심은 나무들의 수를 얼마나 현상까지 나타냈다. 일꾼들이 산림복구에 로력을 집중하기만 했어도 애써 키워 심은 아까운 나무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의 한을 하면서 보신주의올라리를 치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당정책이 제대로 관철될수 없다. 일꾼들은 당의 의도를 누구보다 앞장에서 받아들여 한다. 당에서 나무심기에 령향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로력관리사업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당의 의도를 충실히 이행할수 없다. 모든 일꾼들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벌거숭이산들을 언제라도 수리화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전쟁시기에 인원과 화력을 집중하여 고지점령전투를 벌렸듯처럼 산림복구에 령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벌거숭이산들을 하루빨리 수리화하여야 한다. 특히 산림복구전투를 여러가지 명목으로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거나 로력관리사업을 엄격히 하지 않아 나무심기에 필요한 령향이 분산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산림복구에서 오분열되는 절대금지이다. 쟁쟁비뿔듯 헤쳐는 나무수종을 뿌리고 엄혹한 기후조건에서 모를 재배하며 해를 이어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하는 장기적인 산림복구사업에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팔장을 볼 때까지 꾸준히 로력과 수단을 집중하면서 나무모생산과 나무심기전투를 줄기차게 벌리고 심은 나무들의 생리를 일관해주시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생략하고 추진하면서 나무심기전투에서 성과 거두고있는것은 로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를 놓치며 심은 나무들의 수를 얼마나 현상까지 나타냈다. 일꾼들이 산림복구에 로력을 집중하기만 했어도 애써 키워 심은 아까운 나무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태양절을 맞으며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온 나라에 활짝 피어났다

다함없는 흠모와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화는 나라의 국보이며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함경남도에서 김일성화전시회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다그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도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활짝 피여가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정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한마음한뜻이 되여 태양절을 맞으며 도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와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 시, 군, 구역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들에 불멸의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났다.

도당위원회 지도 밑에 위원회의 일군들은 전시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해당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김일성화재배와 관련한 기술강습을 진행하고 태양의 꽃재배에서 앞선 과학기술을 널리 보급하였다.

함경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도한 김일성화를 훌륭히 피여내도록 하기 위한 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과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재배공들은 포기가지, 짙베어심기, 조적배양 등 번식방법과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혜를 합쳐나갔다.

한희숙, 리명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꽃모를 심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해당 단위들을 도와주고 온실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도 함께 풀어나갔다. 그리고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펼칠 마음안고 김일성화를 더 아름답게 피우면서도 그 수를 대폭 늘였다.

도체신관리국, 통성기계연합기업소, 함흥보방직공장,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약학대학을 비롯한 도의 기관, 기업소, 공장, 대학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온실에 자주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재배공들과 함께 김일성화를 활짝 피워나갔다.

단천시와 금야, 리원, 영광, 덕성군과 함흥시의 흥남구역, 동흥산구역을 비롯한 시, 군, 구역에서도 일군들과 재배공들, 근로자들이 김일성화를 더

활짝 피우기 위하여 지성을 다하였다.

성경도안이 완성되기까지

바야흐로 도김일성화전시회가 열릴 그날이 눈앞에 왔다. 전시회준비도 흥성이니 함흥문화전시관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몇해전에 몸소 보아 주시고 치하해주시신 함흥시도시전망총설계도에 기초하여 함흥시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게 그린 벽화 《태양의 함흥시》가 설치되고있다.

그 전경도를 배경으로 주전시대에 만발하게 피어난 김일성화와 여러가지 보초꽃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천리마동상 등을 형상한 모형들이 조화롭게 장식되게 된다.

주전시대는 물론 도체신관리국과 통성기계연합기업소, 함흥보방직공장,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약학대학 전시대들도 이처럼

완성하였다.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함흥시의 여러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전시대들을 사상적대가 뚜렷하고 조형예술적으로 특색있게 형성하였다.

이렇듯 도안의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반들터 도김일성화 전시회가 성대히 열릴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약학대학에서

평양도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

충정의 마음은 북변의 한끝에도

평양도 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의 온실에도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났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실이 제일인 한 사원이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실이 제일인 한 사원이 있다.

이들은 도급기관 통제대원들과 함께 꽃을 피우려 하는 바쁜 속에서도 한사람이 두루세움을 하면서 온실건설을 다그쳤다.

하나의 산봉우리가 자취를 감추고 거기에 서 파낸 흙과 돌만 하여도 하나의 산을 이루었다. 한해 남짓한 사이에 건설된 재배실, 조적배양실 등을 갖춘 훌륭한 온실을 바라보는 이들의 기쁨은 컸다.

하지만 불멸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우려는 평양도 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은 여기 북변의 한끝에 자리잡고있는 도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에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도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이 온통강기슭의 양지바른 곳에 오묘하게 자리잡게 된다는 그럴 만 한 사원이 있다.

지난 기간 북방의 엄혹한 추위속에서 태양의 꽃을 키워온 위원회일군들은 해발고가 낮고 햇빛이 잘 비쳐드는 지대에 온실을 건설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서 일군들은 무릎을 치는 눈을 헤치며 밭목이 시도록 현지답사를 하던 끝에 마침내 삼수호 주변의 양지바른 곳에 적합한 자리를 정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산에서 30리도 넘는 그곳으로 달려와 착공의 첫삽을 박았다.

새로 건설된 온실에 봄은

일찍 찾아오는듯싶었다. 위원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불멸의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피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한포기한포기의 꽃모를 충실하게 키우기 위하여 온실안의 온습도보장에 힘을 넣었다.

특히 겨울밤에 대기는도가 내려갈 때면 온실안의 온도보장을 위해 일군들과 종업원들 모두가 떨쳐나 온실에 나뭇을 덮어주고 난방대책을 빈틈없이 세웠다.

그리고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더 활짝 피우기 위해 빛보장에 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그들의 뜨거운 지성에 떠받들려 수백송의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활짝 피어나 온실을 찾는 사람들을 황홀경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특파기자 전철주

온습도관리일지를 펼치며

순천시 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성은 가장 뜨겁고 깨끗하며 가장 깊고 넓으며 가장 고고하고 영원한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순천시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앞두고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났다.

아름답게 피어난 불멸의 꽃송이들을 보며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화의 황홀경에 감탄을 금치 못해 하고있다.

뜻깊은 태양절을 앞둔 지금 해주철도분국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 수십송의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나 만사함을 기쁘게 하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 하셔야 한다.》

이곳 온실에는 지난 5년간 함경남도김일성화전시회와 김정일화전시회에서 단위가 받은 10개의 상장이 보관되어있다.

해마다 진행된 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말해주는 그 증서들에는 불멸의 꽃을 더

하지만 날과 달을 넘기며 불멸의 꽃을 오늘과 같이 아름답게 키운 재배공들의 순결한 충정을 다는 알지 못한다.

새벽 1시경 세찬 바람소리에 자리를 차고 일어난 공승전동무는 온실로 달려갔다. 온실안의 밤온도를 23℃로 유지하지 못하면 꽃의 생육에 지장을 줄수 있다.

《주체 103(2014)년 12월 7일 일요일 날씨 흐림, 오후날씨 푸근함.》

새벽 1시 온도 15℃로 급격히 떨어짐. 김미향.

그때 온실에는 나이런 김미향 동무만이 있었다. 태양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 지난해처럼

전시회에서 꼭 특등상을 받았다며 때치고 있고 며칠밤을 지새운 그는 너무나 안타까와 어쩔 바를 몰라하였다.

그들은 금히 온실지붕에 나뭇을 덮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다른 동무들도 온실로 달려나왔다. 모두가 떨쳐나 온실안의 온습도를 보장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였다. ...

한초, 한초 긴장한 시간이

그리하여 해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을 때마다 불멸의 꽃을 활짝 피워 김일성화전시회에 내놓을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해마다 진행된 황해남도김일성화전시회와 김정일화전시회에서 받은 10개의 상장이 불멸의 꽃에 바치는 귀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의 지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이들의 불타는 충정에 떠받들려 태양절을 앞둔 해주철도분국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났다.

특파기자 리승철

호르는 속에 드디어 온실안의 온도는 올라갔다.

《이 세상도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진실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인민은 없습니까.》

전국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재배공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도김일성화 전시회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꽃전시회로 되게 하기 위하여 김일성화기구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파기자 리승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자강도 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도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진실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인민은 없습니까.》

전국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재배공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도김일성화 전시회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꽃전시회로 되게 하기 위하여 김일성화기구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날과 달, 해를 넘기며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송이송이 아름답게 활짝 핀 김일성화를 보며 온실을 찾는 사람들마다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에 높이 모시려는 이들의 순결한 마음에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있다.

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의 일군들은 김일성화전시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리성일, 안향이동무를 비롯한 위원회일군들은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온실들에 나가 재배공들이 김일성화의 생물학

특적성과 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들을 잘 알고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도록 기술지도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김일성화전시회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꽃전시회로 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 나가고있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의 련계밑에 김일성화 전시회가 열리게 될 전시장의

특적성과 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들을 잘 알고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도록 기술지도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김일성화전시회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꽃전시회로 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 나가고있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의 련계밑에 김일성화 전시회가 열리게 될 전시장의

특적성과 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들을 잘 알고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도록 기술지도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김일성화전시회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꽃전시회로 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 나가고있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의 련계밑에 김일성화 전시회가 열리게 될 전시장의

특적성과 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들을 잘 알고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도록 기술지도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김일성화전시회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꽃전시회로 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 나가고있다.

온도보장을 잘해나가고있다. 그리고 전시장을 환하면 서로 이체롭게 단장하기 위한 단

파 함께 실내불장식을 특색있게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성황리에 진행되는 김일성화전시회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한평생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린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 주는 위인칭송의 꽃전시회로 될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10개의 상장이 전하는 사연

해주철도분국에서

활짝 피우기 위하여 바친 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비껴갔다.

5년전 뜻깊은 평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도김일성화전시회에서 해주철도분국의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그날 분국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불멸의 꽃들을 더욱 활짝 피워갈 결의를 굳게 다졌다. 그날의 결의는 실현에 옮겨졌다.

분국일군들은 자주 온실에 나가 온습도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깊이 마음을 썼고 온실종업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불멸의 꽃들을 더욱 활짝 피우자면 정성에 과학기술이 안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텔레비전수상기와 투화기를 마련해준데 이어 불멸의 꽃기구기와 관련한 료화면집필도 보내주었다.

분국일군들의 진실이던 노력에 감동된 온실종업원들은 더욱 분발하였다. 조진구, 박은용, 정환길동무를 비롯한 재배공들은 낮에 밤을 이어 온실의 온습도와 빛보장을 위해 애썼다. 이 나날에 그들은 밤이면 온실지붕에 덧이불을 쳐우고 예비비이라를 더 설치하여 온도보장에 지장이 없게 하였다. 그리고 김일성화

의 생물학적특성을 잘 알고 불멸의 꽃을 과학기술적으로 키우기 위한 기술학습에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을 때마다 불멸의 꽃을 활짝 피워 김일성화전시회에 내놓을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해마다 진행된 황해남도김일성화전시회와 김정일화전시회에서 받은 10개의 상장이 불멸의 꽃에 바치는 귀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의 지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이들의 불타는 충정에 떠받들려 태양절을 앞둔 해주철도분국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났다.

특파기자 리승철

의 생물학적특성을 잘 알고 불멸의 꽃을 과학기술적으로 키우기 위한 기술학습에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을 때마다 불멸의 꽃을 활짝 피워 김일성화전시회에 내놓을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해마다 진행된 황해남도김일성화전시회와 김정일화전시회에서 받은 10개의 상장이 불멸의 꽃에 바치는 귀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의 지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이들의 불타는 충정에 떠받들려 태양절을 앞둔 해주철도분국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났다.

특파기자 리승철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공기같이, 물주머니, 영양액분부 등 김일성화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까자흐스탄공화국 외무성대표단 만경대 방문



바를피바이 사디코프 순회 대사관 단장으로 하는 까자흐스탄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10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

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대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교향집을 훌륭히 보존한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것을 보면서 조선인민이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고있는데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만경대는 세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곳이다.

한편 이날 대표단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옥류야동명원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만경대는 세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곳이다.

한편 이날 대표단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옥류야동명원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태양절경축 전국서에 축전 개막

태양절경축 전국서에 축전이 개막되었다.

축전장에는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태양절에 즈음하여 외집 지지민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 드미트리 코스첸코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주체사상

연구소대표단

연구소대표단

연구소대표단

천출위인을 모신것은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담보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3년 전의 뜻깊은 그날 삼천리강토에 굽이져온 환희와 격정은 오늘도 그 처절한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또 한편의 위대한 태양, 백두의 천출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 모신 것은 해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한인민들도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한껏 터놓았다.

《조선로동당 제 1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자주시대의 가장 존엄하고 권위있는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크나큰 행운이다.》

《태를 이어 수평복을 받아안은 은근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만방에 자랑하자!》

《백두산천출위인인 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성은 이남민중의 가장 절절한 념원이든 오늘 거머쥔 최후의 희망이요, 어찌 그렇지 않으랴. 자나깨나 인민의 행복과 기쁨만을 생각하시며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선군혁명령도의 송고한 자욱자욱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품도, 비범한 령도적자질은 온 겨레를 매혹시켰다. 하기에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의 고결한 품도에 감격을 금치 못한 남조선의 한 정객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나하나의 절음은 다 인민을 위한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그리처럼 뜨겁게 지닌 령도자는 동시교공에 없다고 자기의 진정을 터놓았다.

둘이 커 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혁명적당, 선군의 기치높이 전진하고 투쟁하는 위력한 당, 천만군민을 따듯이 안고 안아 내세워주는 자애로운 어머니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셨다.

인민의 마음속에 사회주의의 세초로,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이께서 이어가신 낮과 밤들은 백이런가, 천이런가.

창건지리와 통라도의 천지개벽, 로라스크에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미림송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에서 넘쳐나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 마시령의 스키바람, 은하과학자거리, 정제도와 무도의 새 모습, 철명아래 새파바다, 조선속도의 새한 열풍속에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력자, 정영양아원과 애육원... 그이의 정력적인 애국헌신으로

로 내 조국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그 누구도 범접 못하는 정치군사강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 우리 당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지켜보면서 남조선 각계는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력에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활동을 보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운을 100% 정확히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수 있다.》, 《북북문제전문가로 자처하는자들이 말하는 《북북포》는 헛소리일뿐이다. 혁명적신념이 확고하고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결합되어있는 북의 체제를 고려한다면 북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김정은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나갈것이다.》, 《태기와 기상이 있으며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당력과 용기를 지니신분.》, 《최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신데다가 필요할때는 언제든 출동할수 있는 거머쥔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결단력을 지니신분...》

절세위인의 품도와 뛰어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인민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민으로 되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목소리는 남녘땅

곳곳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이북민중은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의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고있다. 이북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김정은령도자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북민중은 국가의 해묵은 모든 과제를 넘어서 넘쳐나고있다. 공화국의 품만이 온 겨레가 함께 일어서는 열매로 열매다. 하루빨리 통일열차를 타고 북으로 가고 싶다.》...

남조선 각계에서 위인칭송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인터넷홈페이지들에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령도하여오신 북의 로동당이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력에 앞으로 변함없이 승리만을 이룩할 것이라고 믿는다.》의 의견발표가 있다. 《내외의 글들이 올라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한 래시운전사는 인터넷사이트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열렬히 칭송하고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60여건이나 게재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서운의 한 주민은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 《애버민족방위사령부 별관》 등의 싸리들을 게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하는 글과 동영상들을 연이여 올려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녘의 이런 민심을 반영하여 최근년간만도 남조선 언론들과 인터넷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기사들이 근 20만건이나 실렸다. 해외에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그의 손길아래 날로 번오르는 우리 공화국을 칭송하는 사진 및 동화상을 제작, 배포하는 인터넷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인류역사에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조직했다는 담이 출현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훌륭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고 후계자를 잘못 만났던 자기 존재를 마친 당은 얼마였고 한때는 인민의 지지를 받던 당들이 시대박으로 밀려나가는 또 얼마인인가.

하지만 우리 당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력에 창건된 첫날부터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며 주체혁명위업을 즐기며 전진시켜왔다.

시대와 역사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며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위대한 우리 당은 절세의 위인인 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세계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태양조선의 승리의 기치이고 찬란한 미래이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심이다. 이를 높이 받들고자 하고 따르는 길에 우리 민족의 빛나는 존엄과 무궁번영할 미래가 있다.

위선과 기만의 탈은 벗겨졌다

얼마전 피뢰교부의 인권대사라는 자가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전당살로, 확성기설치, 라디오방송 등을 활용한 대북심리전》이 그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떠벌이면서 《대북전단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피대를 뽐내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해치기 위해 반공화국배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을 더욱 강화하며 거기에 당국이 주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피뢰교부의 공시인물인 인권대사라는 자가 반공화국배라살포, 심리모략전을 공공연히 선동해나선것은 스치기나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피뢰교부의 본심을 드러내었으므로 북남사이의 체제대결과 긴장을 격화시켜 북남관계를 한사코 실현하기 위한 용납 못할 행동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껏 피뢰교부자들은 구우보수단체들과 인산스펙기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행위를 하는 《자율적인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마치도 그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듯이 아닌보살을 해왔다. 때로는 《자제》를 요청하는 기만으로 쫓겨가며 사대의 책임을 피하려고 각계의 비난을 모면하려고 잔꾀를 부리었다.

하지만 그것은 뜨물먹고 주장하는 격의 가스로 추태였다. 사실상 피뢰교부는 버려지같은 자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를 위해서 적극 부추기고 막대한 자금까지 던져주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출현한 이후 여러차례 조성되었던 북남관계 개선의 기운이 그때마다 뒤틀리면서 맞은것은 피뢰교부의 인산스펙기들의 배라살포를 통한 《표현의 자유》로 비호두들하며 그것들을 내몰아 반공화국배라살포를 부린 일적결과이다.

자무속의 송곳은 베어져나오기마련이다.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배라살포가 저를파는 상판이 없는듯이 여론을 오도해왔지만 그 더러운 본성이야 어떻게 감출수 있었는가. 피뢰교부의 이런 망동은 그의 개인적정해가 아니라 다름아닌 당국의 립장과 동족대결정책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동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적대심에 사로잡혀 《세계통일》의 개공을 실현해보려고 미처남달리는 피뢰교부배라살포의 흉악한 계획을 스스로 폭로해주었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에서 우심해지고 있는 반공화국배라살포에 인간스펙기들의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라 피뢰교부의 개입과 추동에 따른 고의적인 도발소동이라는것을 립증해주었다.

북남쌍방은 이미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호상 비방과 모든 형태의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지난해 2월 판문점에서 있는 북남고위급회담때에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현 피뢰교부세력이 이 모든것을 뒤집고 반공화국배라살포에 날로 판기를 부리는 행태에서 어떻게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었는가. 피뢰교부들이 이들을 무조건하여 감행하는 배라살포소동도 성취하지 않아 확성과 라디오방송 등으로 반공화국배라살포의 도수를 더욱 높일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은 북남관계가 나날이 파국으로 풀달음되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위선과 기만의 탈은 벗겨졌다. 남조선피뢰교들은 이미 열거라도 이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

피뢰교부가 북남합의는 안중에도 없이 반공화국배라살포에 본격적으로 나설 흉심을 아무런 거르침없이 드러낸 조건에서 우리가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자나깨나 반민족적인 《세계통일》을 추구하며 북남관계파괴에 열을 올리는 이런 추악한 대결기치왕이들과 두번다시 마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반공화국배라살포를 비롯하여 어떠한 심리전행위도 절대로 허용치 않는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밝힌바 있다. 반공화국배라살포의 수단이 배라살포이든 확성기이든 라디오방송이든 또 그 어느곳에서 감행되든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에 벗어날수 없는것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초래되는 파국적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뢰교부들이 지게 될것이다.

심철영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일본의 죄악을 반드시 계산할것이다

제중조선경제인연합회 성명 발표

제중조선경제인연합회가 1일 《총련에 대한 정지인원행동을 준례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본의 천만부당하고 비열한 반공화국, 반평화적행위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민중들이 감히 존엄높은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상대로 횡포한 파조적폭거를 감행한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제수색들은 일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대표부지역을 하는 총련의 의장과 부의장을

《죄인》취급하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려는 비열한 만행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부런 법치타당성과 과학적근거도 없이 총련을 그 무슨 사건혐의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감행한 일본경찰행위의 강제수색은 일본헌법과 향사소속법에 위반되는 위법수사이며 제일본조선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민족차별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국제수평을 어지럽히며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과 때를 같이 하여 감행된 일본경찰타당국의 만행은 《제도붕괴》를 운운하면서 조강조제《제》로 공화국을

실시시켜보려는 미국의 각본에 따른 반공화국적대행동이라고 폭로하였다.

《법치국가》라고 자처하는 일본이 미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돌격대로 나서는데도 모자라 총련을 상대로 강제수색행위를 감행한것은 절대로 스치거나 보낼수 없으며 용서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제중조선경제인연합회 전체성원들은 총련에 대한 일본민중들의 판폭한 침해행위, 부분별한 정치타당, 인권유린행위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그를 반대해나가는 투쟁에 다 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성명을 강조하였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땅이다

남조선신문이 주장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일본의 독도강탈행위를 단죄하여 5일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일본의 무성인 《독도》에 독도가 《역사적사실》에 비추어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내용은 포함시키려 하고있는 가운데 문부과학성이 《독도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표현을 담은 중학 교과서의 검정결과를 발표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판여할수 있는 모든 출판물에 《독도영유권》주장을 넣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일본이 독도강탈행동에 매달릴수록 죄 많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는 파렴치성이 더욱 부각될뿐이

반일시위를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인민들이 반일시위를 벌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다. 시위자들은 'OUT!'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피뢰교당을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가 2일 미국의 고도요격미사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세누리당》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1일 《세누리당》이 고도요격미사일을 《씨드》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무슨 회의를 열었다고 비난하였다.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씨드》배치를 론의하는데는 이를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고 규탄하였다.

더러난 반역적정체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피뢰서을중앙지방경찰청이 1일 《우리 마당》대포 기지중을 추수소하였다.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우리 마당》대포 기지중은 지난해 3월 5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리퍼트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겼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피뢰서을중앙지방경찰청 공안1부의 검사진원을 인입시켜 조사소동에 열을

더러난 반역적정체

남조선에서 더욱 고조되는 반박근체배라살포투쟁을 가로막기 위한 피뢰교부의 폭압소동이 날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씨드》배치부담을 남조선국민들에게 넘겨주려는 미국의 주장이 그대로 되받아우려는 것은 상진의 리익과 저들의 정치적리익을 위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 모든 국민은 조선반도의 군사적총동원기를 고조시키는 《씨드》배치를 반대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집권여당이 이러한 민심을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사래의 장본인

전 우크라이나수사 니콜라이 아자르브가 최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로씨야에 대한 적대시정세를 계속 추구하고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유럽동맹과의 통합협정조인을 포기하자 국가정권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사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끼여박에 있는 여러 정부군들은 텅 비었으며 그후 미국무성 대변인이 우크라이나를 핵강화하는데 이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내정에 대한 로골적인 간섭이었다고 그는 폭로하였다.

단결하고 협력하여 대륙의 부흥을 이룩한다

—지난해 아프리카나라들의 경제 평균 3.5% 성장, 올해 경제성장률은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것은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어제날 《희망없는 대륙》으로 불리웠던 아프리카의 변천된 모습, 자주적인 사회건설로 들끓는 약동의 숨결을 엿보게 한다.

새 세기를 전후하여 서방식 《민주주의》의 외호리속에 진통을 겪던 아프리카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적발전잠재력이 큰 아프리카대륙을 손아귀에 거머쥐기 위해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몇몇의 《원조》를 흔들며 희유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프리카나라들에 서방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등 반민족적행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서방의 간섭과 전횡은 가족이나 종족 및 민족분쟁, 국경분쟁을 이갈리고있는 아프리카나라들의 불안정한 정세를 키질하였다.

견집을 수 없는 정치적혼란과 류렬적인 무장분쟁, 경제의 파국과 증대되는 빈곤, 무질서의 만연은 당시 아프리카나라들의 현실이었다.

하기에 한 아프리카나라 수상은 서방이 제창했던 정책은 아프리카를 또다시 식민지화했다고 비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서방식《민주주의》도입의 10년간은 아프리카나라들에 있어서 《잃어버린 10년》 동시에 차라리 없었던것보다 못한 《10년》이었다고 개탄하였다.

외세의 침략으로는 언제 가도 외세에 굴복하지, 자제의 힘으로 대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자, 이것이 아프리카인민들이 실생활체험을 통해 찾은 피의 교훈이었다. 아프리카인민들은 분발하여 일어섰다.

성원국들의 절대적인 지지한 동시에 아프리카대륙이 자기의 번영을 신로한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아프리카대륙은 54개의 성원국을 가진 전 대륙적인 기구로, 아프리카인민들의 리익을 위한 권위있는 기구로서 대륙적으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 고있다. 특히 많은 아프리카나라들이 대륙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의 내정간섭행동에 경각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대처해나가고있다. 몇몇대륙의 아프리카주둔 미군사령부설치계획이 이 지역 나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사실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자주정신으로 각성된 아프리카인민들은 오늘 단결하고 협력하여 대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즐기차게 노력하고 있다.

트란다대륙은 자력갱생의 구호에 경제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되었다고 하면서 새해에도 시련과 난관을 막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높고 이글면서 힘을 합쳐 노력하여 국제무대에서 트란다의 국기를 더 높이 휘날릴것이라고 밝혔다.

민주공화국대륙은 정부가 평화와 안전, 안정을 첫차리에 놓고 민족적합일을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지향시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토메 프린시페대륙은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는

에서 정치적안정이 기본이다. 모든 사람들이 애국심과 책임성을 발휘하여 안정된 생활조건을 가진 현대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호소하였다. 지난 2월 12일 남아프리카대륙은 위국인토지소유권의 폐지를 선포하였다. 그 국가의 토지개혁조치에 따라 9만ha이상의 토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고 도시에서 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 다그쳐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지역적통합을 이룩하고 민족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된 제24차 아프리카대륙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담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진행되고있는 고속철도망부설,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 등을 다그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아프리카나운수들의 회의가 남아프리카에서 열렸다. 여기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항공운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까지 아프리카의 단일한 항공운수

패업

프랑스에서 5일 국영라디오 방송회사수속 근로자들이 당국의 부당한 일자리감축조치를 반대하여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방송회사의 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예산적자부족을 줄이려는 미명하에 방송회사부문에서 일자리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데 대해 규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내성실업자수

에스파냐에서 3월에 내성실업자수가 237만 1155명에 달하였다. 6월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경제형편 악화

일본에서 경제형편이 계속 악화되고있다.

6일 일본내각부가 밝힌데 의하면 2월에 공업생산량과 취업형편 등 경제지표를 보여주는 주요경제지수가 그 전달보다 2.8% 떨어졌다.

심각한 어린이빈곤문제

일본에서 어린이빈곤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2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어린이 6명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있다.

